

전남대병원, 미래형 스마트병원 건립 급물살

광주 학동 부지에 1,300병상 확대
1조 2천억 투입...2단계 걸쳐 신축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시설 노후화·의료격차 해소 기대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광주를 찾아 새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전남대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해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1동과 2동은 지은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1동은 44년 된 건물로 국립대병원 주요 진료동 중 가장 오래됐다.

외래와 검사실, 병동과 수술실 등 모든 의료 기능이 동별로 분산돼 있어 이동거리가 길고 복잡한 동선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 공간이 중복돼 있어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되고, 중환자실 운영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분산된 중환자실로 인해 환자 통합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수준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률(2019년 기준)은 서울이 36.36명에 불과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39.12명, 44.08명에 달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2019년 기준) 또한 서울은 33.6명, 광주 34.9명, 전남은 무려 71.2명에 이른다.

광주·전남권역과 수도권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중환자 사망률 역시 차이가 심하다.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서울 2.1개 ▲대구 1.3개 ▲부산 1.3개 ▲광

주 0.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증축이 완료됐거나 새병원이 완공된 병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최근 개원했으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고려대의료원·한양대병원 등이 새병원을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이고,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삼성서울병원 등은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 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15를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 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7년까지 14년간 1조 2,146억원(국고 2,760억원, 자부담 9,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

2단계(서관 건물)는 오는 2037년까지 1동·2동·3동·5동·6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 후 해당 부지에 600병상 규모 병원을 신축해 개원하게 된다. 신축 후 8동의 권역의상센터와 응급센터 등의 진료기능을 이전하게 된다.

안영근 병원장은 "새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시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과의 건강격차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최고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황윤찬



박찬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박찬 교수
과학기술연차대회서 우수논문상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 황윤찬 교수와 보철과 박찬 교수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5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매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국내 과학기술 학술지에 소개된 논문 중 학회별로 가장 우수한 논문 한 편씩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종합위원회가 절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황윤찬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 2021년 2월 대한치과보존학회지 'Restorative dentistry&Endodontics'에 발표한 'Osteostatin과 MTA를 이용한 직접치수복조 후 경조직 형성능(Hard tissue formation after direct pulp capping with osteostatin and MTA in vivo)'이란 논문으로 수상했다.

또 박찬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 2021년 4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영문학회지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JAP)'에 발표한 '다양한 후경화처리에 따른 3D 프린팅 된 광중합레진 치아의 중합효과에 대한 연구(Comparing Volumetric Biological Aspects of 3D-printed Interim Restoration under Various Post-curing Modes)'로 수상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 고객만족 팀 신설
만족도조사·프로세스 개선 활동

최근 '환자경험'이 병원의 중요한 경영 가치로 부상한 가운데 조선대병원이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조선대병원은 환자중심의 병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고객만족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고객만족 관련 업무를 고객만족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좀 더 집중적·효율적으로 운영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고객만족팀은 ▲고객의 소리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환자경험 관련 업무 ▲환자중심 프로세스 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최근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이식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신장이식 700례·간이식 100례 기념' 심포지엄

장기이식분야 강연·토론

전남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최근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신장이식 700례·간이식 100례 기념 이식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안영근 병원장을 비롯해 대한이식학회 권오정 회장·김명수 이사장, 한국장기기증

원(KODA) 문인성 원장, 전남대의과대학 의과학교실 주재균 주임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신장이식 700례와 간이식 100례에 대한 이식혈관외과 이호균·김효신 교수의 성과보고 후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좌장과 연자로 참석해 특별강연, 간이식·신장이식·장기기증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강연이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전남대병원 제1대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한 정상영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체외과 서경석 교수의 '간이식의 과거에서 미래까지(From the past to the future of liver transplantation)'를 주제로 진행됐다.

간이식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이광웅 교수 '복강경 기증자 간절제술의 팁과 함정'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이남준 교

수가 '간이식에서 간동맥 문합시 팁과 함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장이식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 '새로운 로봇 수술 시대에서의 신장이식' ▲전북대병원 신장내과 이식교수 '수혈 시 감각(sensitization)을 예방하기 위한 전력과 기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이식외과 박재범 교수가 '이종장기기식의 최신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장기기증 세션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과 전북대병원 병원장 간담체이식혈관외과 유희철 교수가 좌장으로 ▲고대안암병원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에 대한 국내의 practical issue' ▲한국장기기증원 김미영 코디네이터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전남대학교병원의 전략 및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와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토론이 열렸다.

최수진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늘어 4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하루 평균 6.8명에 이르는 대기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이식의 기회가 제공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뇌사자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죽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최추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터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광주금연지원센터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KS+ KS병원
www.kshosp.com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